

# 의존명사 ‘수’ 구성의 통사·의미적 특성

강 규 영\*

## I. 서론

본고의 목적은 의존명사 ‘수’와 관형사형 어미 ‘-(으)ㄴ’ 및 ‘-는’이 공기하는 양상을 살펴보고, 선행하는 어미에 따른 ‘수’ 구성의 통사·의미적 특성을 정리해보는 데에 있다.

보문을 취하는 의존명사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과 ‘-(으)ㄴ’ 중에서 한 어미를 선택하여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두 어미가 모두 선행할 때에는 어미에 따라 각각 다른 의미를 나타낸다. 그런데 의존명사 ‘수’는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나 수완’을 의미하는 자립명사적 쓰임과 ‘어떤 일을 할 만한 능력이나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으로 해석되는 의존명사적 쓰임을 공시적으로 가지고 있고, 어미 ‘-는’과 ‘-(으)ㄴ’을 모두 취한다. 이에 본고는 ‘수’의 여러 의미가 각기 다른 관형사형 어미와 공기할 것이라 예상하고, 그 공기 양상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의존명사 ‘수’에 관한 연구에는 크게 두 갈래가 있다. 하나는 ‘-(으)ㄴ 수 있/없’으로 굳어진 구성의 의미에 관한 것이다. 안주호(2004)에서는 ‘-(으)ㄴ 수 있/없’ 구성의 의미를 인식양태와 의무양태로 나누어 설명한 바 있고, 박재연(2006)의 양태 연구에서도 두 종류의 양태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시정곤·김건희(2009)에서는 양태구성이 아닌 복문으로 보고자 하였고 김지은(1998)에서는 의무양태로만 처리하였지만, ‘-(으)ㄴ 수 있/없’은 두 종

---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부 재학

류의 양태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수’의 문법화에 따른 의미 변화에 대한 연구가 있다. 이주행(1988)부터 안주호(1997)에 이르기까지 명사의 통시적 의미 변화에 관한 연구에서 ‘수’는 의존명사로의 문법화를 겪은 하나의 예로 언급되어왔다. 안정아(2005)에서는 ‘수’의 다양한 의미를 [방법], [가능성], [경위로 분석하여 정리한 바 있다.

그러나 ‘수’에 선행하는 관형사형 어미에 관해서는 ‘-(으)ㄴ’과 ‘-는’이 가능하다는 정도로 언급만 되었을 뿐, ‘수’가 이루는 전체 구성에 각 어미가 어떤 의미적 영향을 미치는지는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 안정아(2005)에서도 관형사형 어미가 어떤 의미적 특성에 의해 선택되고, 각 경우 ‘수’ 구성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본고는 의존명사의 여러 의미가 관형사형 어미와 어울리는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II장에서 관형사형 어미의 의미 대립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정리하고 III장에서 ‘수’의 다양한 의미를 분류할 것이다. 두 요소의 의미를 정리한 뒤, IV장에서 의존명사 ‘수’의 말뭉치 검색 결과를 토대로 ‘-(으)ㄴ’과 ‘-는’이 어떤 의미의 ‘수’와 어울리는지 알아보고, 그 의미에 의해 통사적 구성 또한 달라짐을 밝히도록 하겠다. 다만 말뭉치 검색 결과를 기반으로 하되, 부자연스러운 문장이라 판단되는 용례에 대해서는 직관에 의존함을 미리 밝혀둔다.

본고는 의존명사 ‘수’ 구성을 통사·의미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의존명사와 관형사형 어미의 의미적 상관성을 밝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의의가 있다.

## II. 관형사형 어미의 의미

관형사형 어미의 의미는 그 범주 설정의 문제와 함께 논의되어 왔다. 시제와 상, 서법 가운데 어느 범주에 포함시켜 보아야 하는지, 혹은 각 어미마다 다른 영역에 포함되는지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것이다.<sup>1)</sup> 그런데 본고는 의존명사와 관형사형 어미가 공기하는 양상을 살펴보는 데에 주목하

고자 하므로 관형사형 어미의 범주 설정 문제는 유보하고, 신현숙(1982)의 입장을 주로 따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서법의 영역에서 관형사형 어미의 의미를 다루는 문숙영(2005), 임동훈(2009) 등 또한 살펴볼 것이다.

먼저 신현숙(1982)에서는 [±실현], [±완성], [±거레] 등의 의미자질을 설정하여 관형사형 어미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본고는 [±실현]은 곧 어떤 사건이나 상태의 시작점을 상징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관련하고, [±완성]은 그 사건 혹은 상태의 끝점을 상징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관련하는 의미자질로 이해하였다.<sup>2)</sup> 따라서 [-실현]의 의미자질을 갖는 ‘-(으)ㄹ’은 어떤 사건의 시작점을 상징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되고, [+실현, +완성]의 의미자질을 갖는 ‘-(으)ㄴ’은 시작점과 끝점을 모두 상징할 수 있는 경우에 쓰인다고 볼 수 있다. 한 가지 덧붙일 점은 신현숙(1982)에서 이러한 의미자질이 현실 세계뿐만 아니라 화자가 생각하는 영역, 즉 심리적인 부분에서의 의미도 포함하는 것이라 밝혔다는 것이다.

문숙영(2005)에서는 ‘-(으)ㄹ’과 ‘-(으)ㄴ’을 각각 비현실(irrealis)과 현실(realis) 어미라고 보았고, 임동훈(2009)에서 ‘-(으)ㄹ’의 범주를 서상법으로 본 것으로 이어진다. 신현숙(1982)의 [±완성] 개념은 어미의 상적 특성과 연관될 수 있고, 문숙영(2005)과 임동훈(2009)의 논의는 ‘-(으)ㄹ’과 ‘-(으)ㄴ’을 서법의 범주로 다루고 있어 입장을 달리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상의 연구들에서 보는 각 관형사형 어미의 의미적 특성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으)ㄹ’은 [-실현]으로서 어떤 사건이나 상태의 시작점을 실제 세계 뿐 아니라 화자의 생각 영역에서도 상징할 수 없는 경우이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는 점에서 ‘비현실’의 의미와 상통한다.

1) 시제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에 의하면 ‘-(으)ㄹ’은 미래 시제를 나타내고 ‘-(으)ㄴ’은 동사 결합 시 과거 시제를, 형용사 결합 시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고 본다. 그러나 미래를 나타내는 ‘-(으)ㄹ’에 과거 시제 표지인 ‘-었-’이 결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으)ㄹ’과 ‘-(으)ㄴ’이 시제 대립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어미마다 다른 영역에 포함된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으)ㄹ’을 서법의 범주로, ‘-(으)ㄴ’을 완료의 상 범주로 보기도 한다(임동훈 2009: 58).

2) 의존명사 앞에 오는 관형사형 어미는 ‘-(으)ㄹ, (으)ㄴ, 는’이므로 본고에서는 ‘-던’과 [±거레]의 의미자질에 관한 논의를 제외하도록 한다.

‘-(으)ㄴ’은 [+실현, +완성]으로 시작점과 끝점을 모두 상정할 수 있는 경우이고, 곧 ‘현실’의 의미이다.

다만 ‘-(으)ㄴ’의 경우 의미가 없는 단순 관형사형 어미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살펴보겠다. 유현경(2009)에서는 ‘-(으)ㄴ’이 ‘때, 무렵’ 등의 의존명사나 일부 자립명사와 결합할 때, 의미를 갖지 않는 단순 관형사형 어미가 된다고 보았다. 문숙영(2005) 역시 ‘-(으)ㄴ’과 ‘-(으)ㄴ’이 ‘때’ 등의 명사 앞에서 전성의 역할만을 수행함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으)ㄴ’과 ‘-(으)ㄴ’이 결합하였을 때를 비교하면 그 의미 차이를 찾을 수 있다.

(1) 가. 교회가 어려운 때를 함께 지내면서

나. 교회가 어려울 때 돕는 사람이 진정한 신자입니다. (임동훈 2009: 70)

(1가)의 ‘어려운 때’는 화자가 마음속에 염두에 둔 날을 가리키는 반면, (1나)의 ‘어려울 때’는 언제일지 모르는 불특정한 날을 가리키며, 이는 ‘-(으)ㄴ’의 의미가 명사의 지시성과 관련하기 때문이다(임동훈 2009: 70-71). 비록 시간성 의존명사 등의 앞에서 ‘-(으)ㄴ’과 ‘-(으)ㄴ’이 비현실과 현실의 서법적 대립을 상실한다고 하여도, [+실현]은 화자가 생각하는 영역에서의 의미도 포함하는 자질이기에 때문에 [-실현]과 [+실현]의 의미적 대립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으)ㄴ’이 후행 명사를 불특정하게 해석되게 하는 것은 화자의 생각 속에서도 아직 선행 용언의 사건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으)ㄴ’이 결합한 명사가 특정하게 해석되는 것은 화자의 생각 속에서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유현경(2009)에서는 의존명사 ‘수’에 선행하는 ‘-(으)ㄴ’과 ‘-는’ 중에서 ‘-(으)ㄴ’이 주로 쓰이며 연결의 기능만 수행하여 문법 패턴을 구성할 뿐이라고 한다. 그러나 ‘-(으)ㄴ 때’와 ‘-(으)ㄴ 때’가 어떤 의미적 차이를 보인 것처럼, ‘수’ 구성에서도 두 어미가 올 때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고에서는 관형사형 어미의 의미적 특성을 신현숙(1982)에 의거하여 ‘-(으)ㄴ’은 [-실현], ‘-(으)ㄴ’은 [+실현]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고, 각각 어떤 ‘수’ 구성

을 이루는지 볼 것이다.

### III. 의존명사 ‘수’의 의미

‘수’의 의미는 문법화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슈’수’는 근대국어에서 자립명사로 등장하였다가 현대국어에 이르러서 의존명사가 되었다(이주행 1988: 141). 의존명사는 문법화의 정도성에 따라 의미 차이를 보이는데(안효경 2001: 46), ‘수’가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다양한 의미 또한 문법화의 정도성 차이에서 비롯한 것이다.

문법화의 정도성은 통사·의미적인 기준에 따라 살펴볼 수 있다. 자립명사가 의존명사가 될 때 통사적으로 제약이 많아지는 의존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겪는다. 통사적 제약이라 함은 자립할 수 없어 관형사형과의 결합이 필수적이고 조사나 서술어 통합 관계에 제약이 있음을 뜻한다. 또 의미적으로는 구체적인 의미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의미로 바뀌게 되고, 더 나아가면 원의에서 아주 벗어나기도 한다(안주호 1997: 43-51). 통사·의미적으로 모두 의존적이게 되는 것이다.

‘수’의 다양한 의미는 통사·의미적인 변화 정도에 따라 단계가 구분된다. 우선 ‘수’의 다양한 용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3)</sup>

- (2) 가. 뽀족한 수를 내지 못했다. [방법]  
 나. 지금 와서 또 그 수를 쓰다니, 비열하게시라……. [방법]  
 다. 아빠도 그렇게 맘을 따는 수가 있는지 몰랐던 모양입니다. [방법]
- (3) 가. 그러나 문학 작품이라면 주제 찾기가 글에 따라서는 마치 미로 찾거나 수  
 수끼끼 푸는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복잡할 수 있다. [기능성]  
 나. 얼굴에서 느껴지는 어떤 감으로도 충분히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  
 을 것 같았다. [능력]
- (4) 결혼한 남녀가 연애 관계에 빠져서 이혼하는 수가 있다. [경위]

---

3) 이 글에서 제시하는 용례는 monoPro를 사용하여 세종 말뭉치에서 가져왔다.

(2)의 ‘수’는 [방법]의 의미를 가지는 자립명사로 쓰인 것이다. 자립명사의 ‘수’는 (2가)나 (2나)처럼 보문을 취하지 않고 주격이나 목적격으로 쓰일 수 있으며 다양한 서술어가 후행한다. (2다)처럼 보문을 취하면 서술어는 ‘있다’나 ‘없다’가 후행하고 조사는 주격 조사만 결합할 수 있다. 자립명사 ‘수’는 대개 통사적으로 자유로우나 보문을 취하는 경우에만 서술어 제약과 조사 결합 제약이 있어 통사적 의존성이 약하게 있는 것이다.

(3)의 ‘수’는 통사·의미적으로 모두 의존적이다. 통사적으로는 (2다)처럼 보문을 취하는 자립명사 ‘수’와 같은 제약을 가지고 있으나, ‘수’의 의미가 [능력]이나 [가능성] 등 추상적인 의미로 변하였다. 이때의 ‘수’는 ‘-(으)ㄴ 수 있/없’ 구성으로 굳어진 ‘수’인데, 그 의미에 대해서는 양태와 관련하여 후술하겠다.

마지막으로 (4)의 ‘수’는 [경위를 뜻한다. 통사적으로는 역시 보문을 취하고 주격이며 서술어도 ‘있다’ 등만 취하는데, 의미적으로는 [방법]에서 떨어진 [경위를 나타낸다.

요컨대 ‘수’는 1) [방법]의 ‘수’, 2) [가능성 1]의 ‘수’, 3) [경위의 ‘수’, 이렇게 크게 세 종류의 의미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때 [가능성 1]은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며 명제의 가능성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인식양태로서의 [가능성 2]와 구분하기 위해 두 가지로 나눈 것임을 미리 밝힌다. ‘수’는 완전한 자립명사의 단계와 보문을 취하여 약간의 통사적 의존성만 보이는 단계, 그리고 통사의미적 변화의 단계를 모두 보여주는 명사로서, 관형사형 어미와 각각 어떤 양상으로 공기하는지 알아보는 데에 적절한 연구대상이 될 것이다. 다만 본고에서 설정한 세 단계는 통사·의미적으로 의존적인 정도에 따라 나눈 것이지, 통시적인 출현 순서가 아님을 밝혀둔다.

〈표 1〉 ‘수’의 의미별 통사·의미적 의존성

	통사적 의존성					의미 변화 여부
	관형사절 필수성 여부	결합 가능한 격조사 종류		후행 서술어 제약		
[방법]	X	보문 X	-	보문 X	-	X
		보문 O	주 격	보문 O	있다/없다	
[가능성 1]	O	주격		있다/없다		O
[경위]	O	주격		있다/없다		OO <sup>4)</sup>

#### IV. ‘수’와 관형사형 어미의 공기 양상

관형사형 어미의 의미와 의존명사 ‘수’의 다양한 의미를 알아보았으니, 두 요소가 어떻게 공기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장에서는 먼저 ‘수’의 의미를 기준으로 각 의미가 어떤 어미와 결합하는지, 그리고 그때의 통사적 특징은 어떠한지 살펴보고, ‘-(으)ㄴ 수밖에 없’ 구성과 ‘-는 수밖에 없’구성, 그리고 관용적 표현인 ‘할 수 없다’와 ‘하는 수 없다’를 비교한다.

##### 1. 각 단계별 ‘수’ 구성

보문을 취하지 않는 자립명사를 제외한 ‘수’는 [방법], [가능성 1], [경위] 등의 의미를 갖는데, 각 경우의 통사적 특성을 살펴보겠다. ‘수’ 구성의 통사적 특징은 다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볼 것이다.

4) 본래의 의미에서 다소 멀어졌음을 나타낸다.

## (5) 통사적 특징의 기준

- ① 관형사형 어미의 종류
- ② 선행 용언의 종류
- ③ 후행 용언의 종류
- ④ 조사 결합 여부
- ⑤ 시제 결합 양상

이는 안정아(2005)에서 의존명사의 의미를 분석할 때 고려해야 할 정보로 제시한 것을 참고하여 정하였다. 안정아(2005)에서는 관형사절을 취하는 의존명사의 경우, 관형사형 어미의 의미, 관형사절의 주어 및 서술어의 의미 특성, 관형사절의 명제 내용, 그리고 후행 서술어의 특징을 살펴야 한다고 하였다. 이 중에서 ‘수’ 구성을 분석하는 데 유의미한 네 가지 기준을 가져 오고 선·후행 용언에 시제가 어떻게 결합하는지를 기준에 포함시켰다.

위 기준으로 세 종류의 ‘수’ 중에서 [가능성 1]의 ‘수’부터 살펴보고 [방법]의 ‘수’, [경위의 ‘수’ 구성을 순서대로 살펴보겠다.

## 1.1. [가능성 1]의 ‘수’

[가능성 1]의 ‘수’는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므로 그 의미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다. 자립명사였던 ‘수’는 ‘-(으)ㄴ 수 있/없’ 구성을 이루어 주어에게 선행 용언을 행할 [방법]이 있다는 의미를 나타내다가 그 행위를 할 [능력]이 있다는 의미로 파생된다. 다음 예문은 [능력의 의미로 사용된 ‘-(으)ㄴ 수 있/없’ 구성이다.

- (6) 가. 한 화소가 가질 수 있는 색깔의 총수와 한 화면에서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색깔의 수는 다르다. [능력]

나. 대기업과 같이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실체는 모두 공공 부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의 공개를 국민은 요구할 수 있다. [허가]

(6가)는 주어에게 선행 용언을 행할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주어에게 내재되어 있는 [능력]뿐 아니라 외부적으로 그 능력이 주어지는



[허가]의 의미도 존재한다. (6나)는 주어의 선행 용언을 행할 수 있도록 외부적으로 [허가]받았다는 것을 뜻한다. 시정곤·김건희(2009)는 이러한 의미를 [자질], [자격], [능력], [가능성] 등이라고 보았으나, 이러한 의미는 모두 주어 내부의 가능성인 [능력]이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허가]로 설명할 수 있다. 결국 [능력]과 [허가]는 주어의 내부적 힘에 의해서든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든 선행 용언을 행할 가능성이 있음을 뜻하며 의무양태(deontic modality) 혹은 주어 중심 양태<sup>5)</sup>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으)ㄴ 수 있/없’ 구성은 다음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인식양태(epistemic modality)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7) 그럴 경우 지상전의 양상은 또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 [가능성]

(7)은 주어인 ‘지상전의 양상’이 ‘또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능력이 있거나 그럴 수 있도록 허가받은 것이 아니라, ‘지상전의 양상이 또다른 국면으로 접어든다.’라는 명제에 대해 화자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내용이다. 이는 곧 의무양태의 ‘선행 용언을 실현할 능력이 있거나, 실현하도록 허가된다’는 의미가 명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화자의 판단인 인식양태 혹은 화자 중심 양태로 이어진 것이다.<sup>6)</sup> ‘-(으)ㄴ 수 있/없’ 구성의 의무양태적

5) 양태의 하위 범주에 관한 논의는 연구마다 다르다. 안주호(2004)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을 따라 ‘의무양태, 인식양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박재연(2006)에서는 보다 포괄적인 논의를 위해 ‘행위양태, 인식양태’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또 김지은(1998)에서는 ‘주어 중심 양태, 화자 중심 양태’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데, 본고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을 따라 ‘의무양태, 인식양태’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6) Bybee *et al.*(1994: 191-199)에서 ‘can’의 의미변화에 대해 논하면서 ‘ability’가 동작주에 내재한 능력뿐 아니라 외재적 조건에 의한 가능성까지 포함하게 되어 ‘root possibility’로 의미가 확장되고, 여기에서 ‘permission’의 의미가 파생되며 인식양태로서의 가능성, 즉 ‘epistemic possibility’로의 전이가 일어남을 주장한 것과 상통한다.

ability → root possibility → epistemic possibility

↘  
permission

의미와 인식양태적 의미는 각각 주어가 선행 용언을 행할 가능성과 명제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므로 그 기저의미는 [가능성 1]이라고 할 수 있다.

의무양태와 인식양태, 두 종류의 의미로 구분되는 ‘-(으)ㄴ 수 있/없’ 구성의 통사적 특징을 앞서 설정한 기준에 맞추어 살펴보겠다.<sup>7)</sup>

#### (8) [가능성 1]의 ‘수’의 통사적 구성

① 관형사형 어미의 종류 : ‘-(으)ㄴ’

② 선행 용언의 종류 : 의무양태일 때 계사 불가능, 인식양태일 때 제약 없음

③ 후행 용언의 종류 : ‘있다’, ‘없다’

④ 조사 결합 여부 : 수의적

⑤ 시제 결합 양상 : 의무양태일 때 후행 용언에만 ‘-었’ 결합 가능  
: 인식양태일 때 선·후행 용언 모두 ‘-었’ 결합 가능

#### ① 관형사형 어미의 종류

먼저 관형사형 어미는 ‘-(으)ㄴ’을 취하여 ‘-(으)ㄴ 수 있/없’ 구성으로 굳어졌다. 자립명사의 ‘수’에서 이러한 우연적 구성으로 문법화 할 수 있었던 것은 ‘-(으)ㄴ’이 [-실현]의 의미자질을 가짐으로써 주어가 선행 용언의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의 확실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본다. ‘-(으)ㄴ’ 계열의 [+실현]이 선행하였다면, 이미 선행 용언의 시작점을 상정한 것이므로 그 방법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에서 가능성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로 의미가 파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 ② 선행 용언의 종류

선행 용언의 종류는 ‘수’가 어떤 양태의미를 갖느냐에 따라 다르다. 인식양태의 [가능성 1] 의미를 가질 때에는 선행 용언에 제약이 없지만, 의무양

7) 본고는 의무양태와 인식양태의 용법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의미의 ‘수’가 다른 관형사형 어미와 어울릴 때 다른 통사적 특징을 지남에 주목하고자 한다. 의무양태와 인식양태 용법의 통사적 차이는 안주호(2004)를 참고한다.

태, 즉 [능력]이나 [허가]의 의미를 가질 때에는 계사가 선행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다.

안정아(2005)에서는 [능력]의 의미를 갖는 ‘수’가 선행 용언으로 형용사를 취할 수 없다고 하였고, 안주호(2004) 역시 동작동사만 선행한다고 한 바 있으나, 본고에서는 형용사 또한 선행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먼저 살펴보겠다. 말뭉치 검색 결과에 의하면 인식양태로 해석할 수 없는데도 형용사가 선행한 예문이 다음과 같이 출현한다.

- (9) 가. 아이들이 홀로 사회의 벽과 마주칠 때 그 외로움 앞에서 유약하지 않고 그 벽을 타고 넘어갈 수 있게 하려면 외로울 때 강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눈치 안 보고 흥겨울 수 있는 삶!  
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고 당당할 수 있는 남성 위주의 사회를 고발하고 싶다.

(9)는 의무양태의 의미를 갖는 ‘수’가 선행 용언으로 형용사를 취한 문장들이다. ‘-(으)ㄴ 수 있/없’ 구성에서 인식양태와 의무양태를 구분하는 기준 중 하나는 관형절이나 부사절로의 활용 여부이다(안주호 2004: 221). 관형절이나 부사절로 쓰이면 의무양태로만 해석되는 것이다. (9나)와 (9다)는 이미 관형절로 쓰인 문장이고 (9가) 역시 ‘강할 수 있는 아이들’과 같이 고쳐볼 수 있으므로 (9)의 예문은 모두 인식양태가 아닌 의무양태를 나타낸다.

다만 계사는 인식양태에만 결합할 수 있다. 계사는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의 속성이나 부류를 지정하는<sup>8)</sup>’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어가 어떤 속성이나 부류로 지정되는 가능성을 획득하는 것은 의미적으로 불가능하다. 계사가 ‘-(으)ㄴ 수 있/없’에 결합한 예문은 다음과 같다.

- (10) 가. 서양화가 국제화일 수는 없다.  
나. 그래서 세월은 날씨에 따라서 장소마다 각기 다를 수 있다.

(10)은 인식양태의 ‘수’ 구성이 계사나 형용사를 선행 용언으로 취한 문

8) 표준국어대사전의 ‘이다’ 풀이 참고.

장이다. [가능성 2]의 의미로 쓰일 때에는 그 명제에 대한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용언에 대한 제약이 없다.

### ③ 후행 용언의 종류

[가능성 1]의 ‘수’ 구성은 후행 용언으로 ‘있다/없다’를 취한다. 실제로 말뭉치 검색 결과 ‘-(으)ㄴ 수’ 구성은 약 9149회<sup>9)</sup> 등장하고 이 중 단 2회 ‘많다’와 ‘나다’ 동사를 취한 용례가 있으나, 본고의 직관에 부합하지 않거나 자립명사적 용법으로 쓰인 예외적인 경우로 볼 수 있다. 두 예외적인 용례는 다음과 같다.

(11) 가. ??사회 결과일 수가 많다.

나. 오늘 굶지 않을 수가 나타나…….

(11가)는 그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거나 그러한 경우가 많다는 뜻인 것으로 보이는데, ‘사회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혹은 ‘사회 결과인 경우가 많다’ 등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본고의 직관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 (11나)는 ‘수’가 [방법]의 의미를 갖는 자립명사처럼 쓰인 예외적인 경우이다.

### ④ 조사 결합 여부

[가능성 1]의 ‘수’의 구성에서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수’가 어휘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조사 결합이 필수적이라는 것과 대비된다. ‘수’의 의미가 추상적이어서 서술어와의 융합도가 높아질 수 있고(안정아 2005: 131), ‘-(으)ㄴ 수 있/없-’이 우연적 구성으로 굳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주격 조사가 결합하면 ‘수’의 의미를 어휘적인 [방법]의 의미로 해석할 여지를 주기도 한다(안정아 2005: 129-130; 안효경 2001: 123). [능력의 ‘수’에 주격 조사를 붙여보면 다음과 같다.

9) 의존명사 ‘수’ 구성 중에는 ‘수(數)’ 구성도 포함되어 있고, 말뭉치의 품사 분류에 실수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여 대략적인 참고 숫자로만 제시한다.

- (12) 가. 많은 경전을 읽고 연구할 거름이나 능력을 갖지 못한 일반 백성이라도 수  
행할 수 있다는 말이다. [능력]  
나. 일반 백성이라도 수행할 수가 있다. [능력 [방법]]

(12가)의 ‘수’는 주어의 [능력]을 뜻하는데, (12나)처럼 주격 조사를 삽입하면 그 의미가 [방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수’가 의존명사적 용법으로 나타내는 의미인 [능력]과 자립명사적 용법으로 나타내는 의미인 [방법]이 의미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 ⑤ 시제 결합 양상

시제 역시 ‘-(으)ㄴ 수 있/없-’의 양태 종류에 따라 결합 양상이 다르다. 먼저 [능력]이나 [허가] 등 의무양태의 의미일 때에는 선행 용언에 ‘-았-’이 결합할 수 없고 후행 용언에만 결합할 수 있다. 의무양태의 용례인 (6)의 예문을 다시 보면 다음과 같다.

- (6) 가. 한 화소가 가질 수 있는 색깔의 총수와 한 화면에서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색깔의 수는 다르다. [능력]  
나. 대기업과 같이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실체는 모두 공공 부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의 공개를 국민은 요구할 수 있다. [허가]  
(6') 가. 한 화소가 가졌을 수 있는 색깔의 총수와 한 화면에서 동시에 표현했을 수 있는 색깔의 수는 다르다.  
나. 대기업과 같이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실체는 모두 공공 부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의 공개를 국민은 요구했을 수 있다.  
(6'') 가. 한 화소가 가질 수 있었던 색깔의 총수와 한 화면에서 동시에 표현할 수 있었던 색깔의 수는 다르다.  
나. 대기업과 같이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실체는 모두 공공 부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의 공개를 국민은 요구할 수 있었다.

의무양태의 의미를 갖는 (6)의 ‘-(으)ㄴ 수 있/없-’에서 선행 용언에 ‘-었-’을 결합한 것이 (6'), 후행 용언 즉 ‘-았-’에 ‘-었-’을 결합한 것이 (6'')이다.

(6')의 경우에는 인식양태로만 해석된다. 과거의 일을 행하는 [능력]이나 [허개]는 의미적으로 불가능하다. 반면 (6'')과 같이 후행 용언에는 시제 표지가 결합할 수 있는데, [능력]이나 [허개]가 과거에 있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한편 인식양태의 ‘-(으)ㄴ 수 있/없-’ 구성에서는 선행 용언과 후행 용언 모두 시제 표지와 결합할 수 있다. 인식양태의 예문이었던 (7)을 다시 보면 다음과 같다.

- (7) 그럴 경우 지상전의 양상은 또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 [가능성 2]  
 (7') 그럴 경우 지상전의 양상은 또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을 수 있다.  
 (7'') 그럴 경우 지상전의 양상은 또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었다.

(7')은 (7)의 예문에서 선행 용언에 선어말어미 ‘-었-’이 결합한 것이고 (7'')은 후행 용언에 결합한 것이다. (7')은 과거에 일어났을 법한 일에 대해 화자가 가능성을 판단하는 내용이라면, (7'')은 어떤 명제의 실현가능성이 과거에는 있었다는 내용이다.

## 1.2. [방법]의 ‘수’

보문을 취하는 [방법]의 ‘수’는 동사와 결합한 관형사형 어미 ‘-는’이 선행하고, 주격 조사와 반드시 결합하며, 서술어로는 ‘있다’만을 취하여 ‘-는 수가 있1-’ 구성을 이룬다. 4.1.3.에서 다룬 [경위의 ‘수’가 같은 구성을 이루기 때문에 둘을 구분하기 위해 ‘-는 수가 있1-’과 ‘-는 수가 있2-’으로 나누었다. 그 통사적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3) [방법]의 ‘수’의 통사적 구성

- ① 관형사형 어미의 종류 : ‘-는’
- ② 선행 용언의 종류 : 동사
- ③ 후행 용언의 종류 : ‘있다’
- ④ 조사 결합 여부 : 필수적
- ⑤ 시제 결합 양상 : 후행 용언에만 ‘-었-’ 결합 가능

말뭉치의 용례를 보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다.

(14) 가. 이틀테면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의 범죄 행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 자료가 없을 때 상황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수가 있다.

나. 식품 섭취만으로는 모자란다고 생각되면 비타민제를 사용하는 수가 있는데, 주의할 점은 꼭 의사와 의논한 후에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① 관형사형 어미의 종류 / ② 선행 용언의 종류

먼저 관형사형 어미는 모두 (14)처럼 ‘-는’이 선행한다. 이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으)ㄴ’이 선행할 때에는 [-실현]의 의미 때문에 ‘방법’의 확실성이 떨어지고, 그러한 방법의 유무가 능력이나 가능성의 유무로 문법화 되어, 구체적인 의미의 [방법]은 ‘-(으)ㄴ’ 계열과만 어울리게 된 것이 아닐까 한다.

그 중에서 ‘-는’이 선택되는 것은 선행 용언에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는 수가 있-1’의 선행 용언으로는 동사만 결합할 수 있다. [방법]의 의미는 형용사나 계사와 어울리지 않는다. 형용사나 계사는 주어의 상태 및 속성과 관련하는데 그와 관련한 방법을 상징하는 것은 의미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제약 때문에 선행하는 관형사형 어미는 ‘-는’만 가능하다.

### ③ 후행 용언의 종류

한편 [방법]의 ‘수’는 후행 용언으로 ‘있다’만을 취한다. ‘-는’이 갖는 [+실현]의 의미가 이미 선행 용언의 시작점을 실제 세계에서든 화자의 생각 속에서든 상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그 방법이 있음을 전제하므로 ‘없다’는 의미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제시했던 (14) 예문에서 관형사절과 ‘수’ 사이에 지시대명사 ‘그’를 삽입해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14') 가. 이틀테면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의 범죄 행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 자료가 없을 때 상황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그} 수가 있다.

나. 식품 섭취만으로는 모자란다고 생각되면 비타민제를 사용하는 {그} 수가

있는데, 주의할 점은 꼭 의사와 의논한 후에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4')에서 '그'가 삽입 가능하다는 점은 후행하는 '수'가 특정적임을 보여 준다. 곧 화자가 그 방법의 존재를 이미 상정하고 있음을 나타내므로, '없다'는 의미와 의미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없다'가 후행할 수 있는 '-(으)ㄴ 수 있/없-' 구성의 경우에는 '그'가 삽입되지 않는 것과 대비된다. (6)과 (7)의 예문을 다시 살펴보면 '그'를 삽입해보면 다음과 같다.

(6') 가. 한 화소가 가질 [\*그 수 있는 색깔의 총수와 한 화면에서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색깔의 수는 다르다.

나. 대기업과 같이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실체는 모두 공공 부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의 공개를 국민은 요구할 [\*그 수 있다.

(7') 그럴 경우 지상전의 양상은 또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그 수 있다.

(14')와 달리 (6')과 (7')에서 '그'를 삽입할 수 없음은 [능력이나 [가능성 2]의 '수'가 그 [가능성 1]이 이미 있음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능성 1]의 '수'는 그 능력이나 가능성 등의 유무를 아직 알지 못하므로 '있다'나 '없다'와 공기할 수 있으나, [방법]의 '수'는 이미 있다는 것은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있다'와만 공기하는 것이다.

다만 말뭉치에 용언 '없-'과 공기하는 용례가 5회 등장하므로 살펴보겠다.

(15) 가. ??허리를 굽힐 수도 목을 임의대로 돌리는 수도 없었다.

나. ??그렇다고 그 돈을 도로 물리는 수는 없는 티이고……

다. 미처 참아낼 수 없을 때엔 옷을 버리는 수도 없는 것이 아니었다.

라. 서점이 책을 돌려받고 책값까지 내어주는 수는 없을까.

마. 아주 바보가 되는 수는 없나?

(15') 가. 허리를 굽힐 수도 없고 목을 임의대로 돌릴 수도 없었다.

나. 그렇다고 그 돈을 도로 물릴 수는 없는 티이고……

(15가)의 '수'는 [능력의 의미이고 (15나)의 '수'는 [허거]의 의미다. 두 의



미가 각각 부정되어 (15가)는 [무능력의 의미를 나타내고 (15나)는 [금제의 의미를 나타낸다.<sup>10)</sup> (15나)의 경우, 스스로에게 그런 일을 허가해줄 수 없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15')처럼 의무양태의 ‘-(으)ㄴ 수 있/없’ 구성으로 바뀌어야 더 자연스럽다. (15다)는 ‘없-’이 후행하고는 있으나 이중부정 표현에 의해 결국 ‘있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는’의 [+실현과 공기할 수 있다. 또 (15라)와 (15마)는 ‘수’와 화제 표지 ‘-는’이 결합하여 ‘없-’과 어울리는 양상을 보여준다. 보조사 ‘-는’은 선행하는 명사가 구 정보임을 나타내줄 수 있는 것이다.

#### ④ 조사 결합 여부

[방법]의 ‘수’는 조사 결합이 필수적이다. ‘수’의 의미가 구체적이고 어휘적이며, ‘-는 수가 있다1’ 구성이 공고하게 굳어진 표현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조사가 생략된 경우가 총 3회 검색되었는데 다음과 같다.

(16) 가. ??이 자리에서 들어주는 수 있는 건 이 애미가 어떻게든 해볼 터이니.

나. 하는 수 있나!

(16') 가. 이 자리에서 들어줄 수 있는 건 이 애미가 어떻게든 해볼 터이니.

(16가)는 [능력의 유무를 나타내는 의미이고 (16'가)처럼 그 의미에 맞는 ‘-(으)ㄴ 수 있/없’으로 고쳐야 자연스럽다. 또 (16나)는 관용적 표현인 ‘하는 수 없다’의 수사의문문이다. 위 용례를 제외한 모든 [방법]의 ‘수’ 구성은 조

10) 이러한 의미는 문맥을 통해 파악하였다.

(15") 가. 그들은 일을 하니 안 아픈 곳이 없었다. 팔을 돌리면 팔이 아프고 다리를 돌리면 다리가 아팠다. 그리고 허리를 굽힐 수도 없고 목을 임의대로 돌리는 수도 없었다.

나. “아 고런 망상시런 것이 어디 있담…… 어서 넣어두어라. 그리고 내일은 저 등도 같고 의원도 좀 오래서 보이지, 응 애 내 말 들었니?” 선비 어머니는 선비를 쿡 찔렀다. 그제야 선비는 “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선비는 그 돈 집을 것이 난처하였다. 그렇다고 그 돈을 도로 물리는 수는 없는 터이고…… 하아 망설망설할 때 선비 어머니는 그 돈을 집어 딸의 손에 쥐어주었다.

양태 의미의 부정에 관한 연구는 박재연(2003), 시정곤·김건희(2009)를 참고한다.

사 ‘가, 도, 는’을 취한다.

### ⑤ 시제 결합 양상

[방법]의 ‘수’ 구성에서는 후행 용언에만 시제가 결합할 수 있다. (14)의 예문을 다시 가져와서 보면 다음과 같다.

(14) 가. 이룰테면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의 범죄 행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 자료가 없을 때 상황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수가 있다.

나. 식품 섭취만으로는 모자란다고 생각되면 비타민제를 사용하는 수가 있는데, 주의할 점은 꼭 의사와 의논한 후에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4') 가. 이룰테면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의 범죄 행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 자료가 없을 때 상황적인 조건을 ??제시한 수가 있다.

나. 식품 섭취만으로는 모자란다고 생각되면 비타민제를 ??사용한 수가 있다.

(14'') 가. 이룰테면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의 범죄 행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 자료가 없을 때 상황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수가 있었다.

나. 식품 섭취만으로는 모자란다고 생각되면 비타민제를 사용하는 수가 있었다.

(14')에서 선행 용언에 ‘-았-’은 ‘-는’과 결합할 수 없고, 과거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으)ㄴ’으로 어미를 고쳐도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반면 (14'')에서 후행 용언에는 ‘-았-’이 결합하여 그러한 방법이 과거에 있었음을 나타낸다.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무언가를 하는 [방법]은 의미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14')처럼 선행 용언은 과거 시제와 결합할 수 없다.

### 1.3. [경위]의 ‘수’

[경위의 ‘수’가 등장하는 말뭉치의 용례를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7) 가. 결혼한 남자가 연애 관계에 빠져 이혼하는 수가 있다.

나. 없던 사람이 돈이 좀 생기거나 지위가 높아지면 본인은 전혀 지각하지 못하지만 남 보기에 무척 오만해지는 수가 있다.

[능력]이나 [허개], [가능성] 등이 [방법]에서 파생되는 과정은 비교적 자연스러운 문법화의 과정이었던 데 비해, [경위는 [방법과 의미적 거리가 멀다. [경위의 의미는 ‘수’의 여러 의미 중에서 인식양태의 [가능성]에서부터 전이되었을 것을 추측할 수 있다. (17) 예문을 ‘-(으)ㄴ 수 있/없-’ 구성으로 바꾸어보면 이 점이 확인된다.

(17') 가. 결혼한 남녀가 연애 관계에 빠져 이혼할 수가 있다.

나. 없던 사람이 돈이 좀 생기거나 지위가 높아지면 본인은 전혀 지각하지 못하지만 남 보기에 무척 오만해질 수가 있다.

(17')은 (17)의 문장을 ‘-(으)ㄴ 수 있/없-’ 구성으로 바꾼 것인데, 모두 인식양태의 [가능성]로 해석된다. 의무양태와 인식양태를 구분하는 통사적 특성 중 하나는 과거 시제 표지가 선행 용언에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17')의 예문에서 ‘수’에 선행하는 용언에는 ‘-었-’이 결합할 수 있다.

(17'') 가. 결혼한 남녀가 연애 관계에 빠져 이혼했을 수가 있다.

나. 없던 사람이 돈이 좀 생기거나 지위가 높아지면 본인은 전혀 지각하지 못하지만 남 보기에 무척 오만해졌을 수가 있다.

따라서 (17')의 문장은 모두 인식양태로서의 ‘-(으)ㄴ 수 있/없-’ 구성이며, [경위의 의미가 인식양태의 [가능성]에서부터 전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위의 ‘수’는 동사와 결합한 관형사형 어미 ‘-(으)ㄴ’과 ‘-는’이 선행하고, 주격 조사와 반드시 결합하는데 서술어로는 ‘있다’뿐 아니라 ‘ 많다’류(類)도 취한다. [방법의 ‘수’보다는 결합 제약이 덜한 구성이나, 대개 ‘-는 수가 있-’ 구성을 취하므로 ‘-는 수가 있2’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그 통사적 구성은 다음과 같다.

(18) [경위의 ‘수’의 통사적 구성

- ① 관형사형 어미의 종류 : ‘-는’ (‘-(으)ㄴ’)
- ② 선행 용언의 종류 : 동사 (형용사, 계사)
- ③ 후행 용언의 종류 : ‘있다’, ‘많다’류

- ④ 조사 결합 여부 : 필수적  
 ⑤ 시제 표시 결합 양상 : 후행 용언에만 ‘-았’ 결합 가능

### ① 관형사형 어미의 종류 / ② 선행 용언의 종류

우선 [경위의 ‘수’는 형용사가 선행할 경우 관형사형 어미 ‘-(으)ㄴ’을, 동사가 선행할 경우 ‘-는’을 취한다. [방법]의 ‘수’는 그 의미상 형용사나 계사가 결합할 수 없어 ‘-는’만 선행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경위]라는 의미는 형용사나 계사와 어울릴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제약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과거 시제의 동사나, 형용사 및 계사가 결합하여 ‘-(으)ㄴ’이 선행한 용례가 검색되지만, 그 수가 8회<sup>11)</sup>로 매우 적게 나타나고 본고의 직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 중 선행 용언이 과거 시제 동사인 경우는 ⑤ 시제 결합 양상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우선 다음은 형용사 및 계사가 ‘-(으)ㄴ’과 결합하여 ‘수’가 [가능성 2]과 [경위의 의미로 모두 해석되는 용례이다.

- (20) 가. ??보석은 낡은 수 없다.  
 나. ??혹시 그 무수히 많은 말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으며,  
 다. ??또 당국자나 강자에게 비판적인 수도 있으나,  
 라. ??어떤 민족의 전통에서 시의 기원과 수수께끼의 기원은 같은 수가 있지만,  
 마. ??노상 있는 싸움이라도 그 까닭이 노상 같은 수는 없을게다.
- (20') 가. 보석은 낡을/낡았을 수 없다.  
 나. 혹시 그 무수히 많은 말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으며,  
 다. 또 당국자나 강자에게 비판적일 수도 있으나,

11) 이 중 ‘수’가 [경위가 아닌 [가능성 1]의 의미를 가져서 ‘-(으)ㄴ 수 있/없’으로 써야 더 자연스러운 ‘-(으)ㄴ 수’ 구성 1회는 예외로 처리하여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그 문장은 다음과 같다.

(19) 엄마가 나를 데리러 시골에 나타났을 때 엄마의 모든 태도엔 일종의 기품 같은 것이 서리어 있었다. 그건 누가 보기에든 서울 가기 전의 엄마에겐 없던 새로운 것이었다. 그 도도한 건 바로 서울로부터 묻혀온 것이었다. 그 도도함 때문에 엄마의 일차 출분은 별로 책잡히지 않았고, 다시 나를 서울로 끌어내는 일까지 ??순조로운 수가 있었다. 그런 엄마가 알고 보니 겨우 서울의 문 밖에 살고 있었던 것이다.

(19') 다시 나를 서울로 끌어내는 일까지 순조로울 수가 있었다.

라. 어떤 민족의 전통에서 시의 기원과 수수께끼의 기원은 같을 수가 있지만,  
 마. 노상 있는 싸움이라도 그 까닭이 노상 같을 수는 없을게다.

(20'') 가. 보석은 낚은/낚는 경우가 없다.

나. 혹시 그 무수히 많은 말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경우도 있으며,

다. 또 당국자나 강자에게 비판적인 경우도 있으나,

라. 어떤 민족의 전통에서 시의 기원과 수수께끼의 기원은 같은 경우가 있지만,

마. 노상 있는 싸움이라도 그 까닭이 노상 같은 경우는 없을게다.

(20)의 ‘수’는 형용사 및 계사와 결합하여 ‘-(으)ㄴ 수’ 구성을 이루었으나 (20')이나 (20'')처럼 쓰는 편이 더 자연스럽다. 먼저 위 예문에서 ‘수’는 화자의 인식과 관련한 [가능성 2]으로 해석될 수 있고, (20')처럼 ‘-(으)ㄴ 수 있/없’으로 고치면 자연스럽다. 한편 [경위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데, 이때는 ‘수’ 대신 ‘경우’로 쓰는 편이 직관에 부합한다.<sup>12)</sup> 결국 (20)은 ‘-(으)ㄴ’에 후행한 ‘수’를 ‘경우’로 바꾸거나 전체 구성을 ‘-(으)ㄴ 수 있/없’ 구성으로 바뀌어야 자연스럽고, ‘-(으)ㄴ 수 있’ 자체는 직관에 잘 부합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가능성 2]의 뜻으로는 해석되지 않고 [경위로만 해석되는 ‘수’ 역시 다음과 같이 ‘경우’로 바뀌어 문장이 자연스럽다.

(21) 소견이 다른 수도 적지 않다.

(21') ??소견이 다를 수도 적지 않다.

(21'') 소견이 다른 경우도 적지 않다.

(21)의 ‘수’는 [경위만 뜻하고 있어 (20)보다는 더 직관에 부합한다. (21')이 어색한 것을 보아 [가능성 2]으로 해석될 여지는 없고, (21'')를 통해 [경위의 뜻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수’를 ‘경우’로

12) 다만 (20'')에서 [경위의 ‘수’ 구성은 ‘-(으)ㄴ 수 있/없’처럼 굳어진 구성이 아니므로 주격 조사가 반드시 붙어야 한다. 또 용언 ‘낚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형용사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낚다’가 동사와 형용사로 모두 사용되듯이 동사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형용사적 용법일 때에는 ‘-(으)ㄴ’이 결합하고 동사적 용법일 때에는 ‘는’이 결합한다. 본고에서는 ‘낚다’의 품사 문제에 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바뀌어야 더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20)과 (21)의 예를 통해서 [경위라는 의미 자체는 ‘-(으)ㄴ’과 결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수’는 ‘-는’과 주로 결합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방법]의 ‘수’가 갖는 의미가 ‘-(으)ㄴ’이 갖는 [+완성]의 의미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는’만 선행하는 것으로 본 것과는 달리, [경위의 ‘수’는 ‘-는’이 선택하기 때문에 형용사나 계사가 결합하지 않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 ③ 후행 용언의 종류

한편 [경위의 ‘수’는 후행 용언의 종류가 비교적 다양한 편이다. ‘-는 수가 있2-’ 구성은 ‘있다’와 더불어 ‘ 많다’와 ‘허다하다’ 등의 서술어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그 용례는 다음과 같다.

(22) 가. 혈액 질환도 소화 불량의 원인이 되는 수가 많다.

나. 공통점이 발견될 일도 성급하게 대화를 단절하고 적대 관계, 적대 행위로 돌입하는 수가 적지 않은 것이다.

다. 나중에는 그 처방이 처음과는 다르게 되어 버리는 수가 허다했다.

라. 가짜 대학생에게 속아넘어가 신세를 망치는 수도 흔했으니, 대학 나왔다는 것이 흠이 되리라고는 생각 못하였을지도 모른다.

(22)는 ‘수’가 ‘있다’가 아닌 서술어와 결합한 문장인데, 모두 ‘ 많다’는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22가)와 같이 서술어 ‘ 많다’가 결합한 경우는 총 65회, (22가-라)처럼 ‘적다, 허다하다, 흔하다’와 결합한 경우는 각각 2회씩 발견되는데, (22나)처럼 서술어 ‘적다’는 ‘적지 않다’의 형태로만 쓰이고 이는 결국 ‘ 많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수’의 여러 의미 중에서 [경위만 ‘있다’가 아닌 다른 서술어와 결합할 수 있는 것은 [경위의 의미가 더 어휘적임을 보여준다. ‘수’의 문법화 정도를 보았을 때, 원의에서 가장 떨어진 의미지만 오히려 그 문법적인 정도는 떨어진 것이다.

### ④ 조사 결합 여부

[경위의 ‘수’의 의미가 어휘적이라는 것은 조사 결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는 수가 있2’ 구성은 조사 ‘가, 도, 는’과 반드시 결합하여 등장하고, 조사가 생략된 경우는 발견되지 않는다.

##### ⑤ 시제 결합 양상

[경위의 ‘수’는 의미상 선·후행 용언 모두 과거 시제와 결합할 수 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경우의 유무에 대해 논할 수도, 어떤 경우가 과거에 있었던 점에 대해 논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선행 용언에는 ‘-는’이 주로 결합하므로 ‘-었-’이 올 수 없고, 과거 시제 동사와 ‘-(으)ㄴ’의 결합은 단 1회 등장하는데 다음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다소 어색하다.

- (23) ??문제의 해결책은 인간의 선택이나 행동에서 비롯한 수밖에 없다.  
 (23') 문제의 해결책은 인간의 선택이나 행동에서 비롯할/했을 수밖에 없다.  
 (23'') 문제의 해결책은 인간의 선택이나 행동에서 비롯한 경우밖에 없다.

(23)은 선행 용언을 과거 의미로 사용한 것인데, (23')처럼 [가능성 2]의 의미로 쓰거나 (23'')처럼 ‘수’를 ‘경우’로 바꿔 쓰는 편이 더 자연스럽다. 앞서 형용사나 계사와 결합한 ‘-(으)ㄴ 수’ 구성이 모두 어색하게 여겨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역시 마찬가지이다. 물론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후행 용언에는 과거 시제가 결합할 수 있다.

- (17) 가. 결혼한 남녀가 연애 관계에 빠져 이혼하는 수가 있다.  
       나. 없던 사람이 돈이 좀 생기거나 지위가 높아지면 본인은 전혀 지각하지 못하지만 남 보기에 무척 오만해지는 수가 있다.  
 (17') 가. 결혼한 남녀가 연애 관계에 빠져 ??이혼한 수가 있다.  
       나. 없던 사람이 돈이 좀 생기거나 지위가 높아지면 본인은 전혀 지각하지 못하지만 남 보기에 무척 ??오만한 수가 있다.  
 (17'') 가. 결혼한 남녀가 연애 관계에 빠져 이혼하는 수가 있었다.  
       나. 없던 사람이 돈이 좀 생기거나 지위가 높아지면 본인은 전혀 지각하지 못하지만 남 보기에 무척 오만해지는 수가 있었다.

(17)의 예문을 다시 보자면 (17')에서 선행 용언은 과거 시제와의 결합이 어색한 반면 (17'')처럼 후행 용언에는 ‘-었-’이 결합하여 그러한 경우가 과

〈표 2〉 ‘수’ 구성의 의미와 통사적 구성

		-(으)ㄴ 수 있/없-		-는 수가 있-	
		의무양태	인식양태	-는 수가 있1-	-는 수가 있2-
의미		[가능성1]		[방법]	[경위]
		[능력] [허가]	[가능성2]		
선행 용언		동사 형용사	동사 형용사 계사	동사	동사 (형용사 계사)
후행 용언		있다/없다	있다/없다	있다	있다/많다류
조사 결합		수의적	수의적	필수적	필수적
시제	선행 용언	불가능	가능	불가능	불가능
	후행 용언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거에 있었음을 나타낸다. 이 역시 [방법]의 ‘수’는 그 의미상 선행 용언에 과거 시제가 결합할 수 없었던 것과 달리, [경위의 ‘수’는 ‘-는’이 선행하기 때문에 과거 시제가 결합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관형사형 어미가 어떤 의미의 ‘수’와 어울리며 어떤 통사적 특징을 보이는지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정리하자면, [가능성 1]의 ‘수’는 ‘-(으)ㄴ 수 있/없-’ 구성으로 굳어져서 조사 생략이 가능하고, 그 양태 의미에 따라서 선행 용언의 종류나 시제 결합 여부가 다르다. [방법]의 의미에서 [가능성 1]이라는 추상적인 의미로 문법화한 것은 ‘-(으)ㄴ’이 [-선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유무를 알 수 없는 [능력], [가능성 2] 등의 의미로 쓰일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보문을 취하는 자립명사인 [방법]의 ‘수’와 [경위의 ‘수’는 모두 ‘-는 수가 있-’ 구성을 이루는데 ‘-는 수가 있 1-’은 [방법]이라는 ‘수’의 의미 때문에 선행 용언에 과거 시제가 결합할 수 없는 등의 제약이 있었던 반면, ‘-는 수가 있 2-’ 구성은 의미상으로는 가능한 결합도 ‘-는’에 의해 제약이 가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결국 관형사형 어미는 그 종류에 따라 다른 의미의 ‘수’와 어울리고



그 통사적 구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으)ㄴ 수밖에 없.’와 ‘-는 수밖에 없.’

의존명사 ‘수’가 ‘밖에 없.’과 통합한 구성도 ‘-(으)ㄴ’이 선행하는 ‘수’는 [가능성 1]의 ‘수’이고, ‘-는’이 선행하는 ‘수’의 의미는 [방법]임을 보여준다. ‘-(으)ㄴ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허가]나 [가능성 2]만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는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방법]만 있다는 의미인 것이다.

- (24) 가. 역시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노는 수밖에 없다.  
 나. 음대생인 딸을 설득시켜 바이올린을 포기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다. 부모가 자식을 놓아주지 않는 한 자식은 부모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다.

(24가)는 [방법]의 ‘수’가 ‘-는’과 결합한 문장이고, (24나·다)는 각각 [허가]의 ‘수’와 [가능성 2]의 ‘수’가 ‘-을’과 결합한 문장으로 의무양태와 인식양태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러한 의미는 ‘다른 방법/허가/가능성은 없다’ 따위의 문장을 이어보면 알 수 있다.

- (24') 가. 역시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노는 수밖에 없다.  
 [다른 방법은 없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른 가능성은 없다.]  
 나. 음대생인 딸을 설득시켜 바이올린을 포기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방법은 없었다. 하지 않으면 안 됐다. ??다른 가능성은 없었다.]  
 다. 부모가 자식을 놓아주지 않는 한 자식은 부모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다.  
 [??다른 방법은 없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다른 가능성은 없다.]

(24'가)는 ‘다른 방법은 없다’만 이어질 수 있고, (24'다)는 ‘다른 가능성은 없다’만 이어질 수 있는 것을 보아 각각 [방법]과 [가능성 2]을 나타남을 알 수 있다. (24'나)의 경우 ‘다른 방법은 없었다’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선행용언을 하는 것만 허가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의미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24'나)에서 ‘수’가 갖는 의미는 [허가]로 본다. 이에 대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재에서는 ‘-(으)ㄴ 수밖에

없’ 구성은 추측이나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고 ‘-는 수밖에 없’ 구성은 정해진 사실로 확인하는 판단이라고 설명한다(국립국어원 2005: 805). 이러한 설명은 오히려 앞서 살펴본 관형사형 어미 ‘-(으)ㄴ’과 ‘-는’의 의미 차이에 부합하는 설명이다. 그러나 수행할 수 있는 문장의 종류를 살펴보면 판단의 근거가 되는 내용의 확실성보다는 ‘수’의 의미 자체가 다름을 알 수 있다.

### 3. ‘할 수 없다’와 ‘하는 수 없다’

이상의 논의에서 관형사형 어미 ‘-(으)ㄴ’과 ‘-는’이 각각 다른 의미의 ‘수’와 결합함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유독 ‘할 수 없다’라는 관용적 표현의 경우, ‘하는 수 없다’와 아무런 의미 차이 없이 쓰인다. ‘어쩔 수 없다’와 ‘어찌는 수 없다’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관용 표현에서의 ‘수’는 의무양태의 [능력]을 뜻한다. 관용화 되어 그 뜻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듯하나, 부사절이나 관형사절로 활용할 수 있고 통시적 연구에 있어서 인식양태로 문법화하기 전에도 그 표현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의무양태적 의미임을 알 수 있다.

먼저 의무양태의 ‘-(으)ㄴ 수 있/없’ 구성만 부사절 혹은 관형사절로 사용할 수 있는데(안주호 2004: 221), ‘할 수 없이, 할 수 없는’ 등으로 활용되는 양상은 다음과 같다.

- (25) 가. 나는 할 수 없이 “네.”하고 대답했지만 좀 섭섭했다.  
 나. 그러나 선천적으로 내재된 그의 철학은 어쩔 수 없이 그의 본성 그대로의 세계를 추구하고 만다.  
 다. 물귀신이 되었다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라. 도망친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25)는 ‘할 수 없다’와 ‘어쩔 수 없다’가 부사절과 관형사절로 쓰인 문장이다. 이는 ‘어찌할 수 없다’가 준 ‘할 수 없다’나 ‘어쩔 수 없다’의 의미가 인식양태라는 것을 알려준다. 또한 통시적 연구의 용례를 재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26) 가. 맞기고저 호되 힘이 갖지 못함미 혈 슈 업서 즉시 두어권을 정성으로 초출흐야 날이 보늬여 <1881군영적,027b>

나. 한나라를 잊지 못흐고 힘이 다흐여 엇지 홀 슈 업서 항복흔 거슬 한나라의셔 리통이를 삼죽을 떨흐니 리통이가 <1883명성경,034a> (안주호 2004: 223 재인용)

(26)은 ‘-(으)ㄴ 수 있/없’ 구성이 인식양태로 문법화하기 전인 19세기 말 경의 용례이므로 의존양태의 의미에서 ‘수’의 문법화와 거의 동시에 이미 일찍이 굳어진 표현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구성에 ‘-는’도 결합하는 것은 의아한 상황이다. 앞서 살펴본 ‘-는’의 [+실현] 의미에 주목하면 ‘할 수 없다’를 ‘하는 수 없다’로 대체하는 것은 의미적으로 맞지 않다. 관용적 표현이라 조사는 생략될 수 있다 하여도, ‘-는’은 ‘없다’는 의미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어찌하는 방법이나 능력’은 화자가 이미 머릿속에 실현을 상정해둔 것인데, 그것이 없다는 것은 의미적으로 불가능하다.

본고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굳어진 ‘-(으)ㄴ 수 있/없’ 구성에 ‘-는’이 부차적으로 결합한 현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자 한다. ‘수’의 문법화는 ‘-(으)ㄴ’이 선행할 때 이루어지므로 ‘-는’의 결합은 시기적으로 더 뒤임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으)ㄴ 수 있/없’의 우연적 구성이 문법화 하여 굳어진 후, [+실현]의 ‘-는’이 결합함으로써 일부 ‘수’가 [경우나 방법] 등 어휘적인 의미로 바뀐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할 수 없다’나 ‘어쩔 수 없다’ 구성에도 ‘-(으)ㄴ’ 대신 ‘-는’을 결합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을 것인데, 이 구성은 이미 굳어진 표현이어서 의미 차이를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다.

## V. 결론

지금까지 의존명사 ‘수’의 의미에 따라 다른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하고, 그에 따라 통사적 구성 또한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관형사형 어미 ‘-(으)ㄴ’과 ‘-(으)ㄴ’의 의미는 [+실현]과 [-실현]의 의미자

절로써 구분되고, ‘수’의 의미에는 [방법], [가능성1], [경위]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으)ㄹ’은 [가능성1]의 ‘수’와 공기하고 ‘-는’은 [방법]과 [경위의 ‘수’에 선행한다. 이렇게 관형사형 어미가 다른 의미의 ‘수’와 어울린다는 것은 곧 ‘-(으)ㄹ’과 ‘-(으)ㄴ’의 [±실현] 대립이 의존명사 앞에서 온전히 남아있지는 않더라도 각각 어울리는 의미를 달리함으로써 통사적 구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경위의 ‘수’ 구성에서는 선행 용언의 제약이나 시제 결합의 양상이 [경위라는 의미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선행하는 어미가 ‘-는’이라는 점에서 비롯하였다.

심지어 [±실현]의 대립이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도 있다. [방법]의 ‘수’ 구성에서 후행 용언에 ‘없다’가 올 수 없다는 점이 그러하다. ‘-는’의 [+실현] 의미에 의해 ‘수’의 [방법]은 이미 존재함이 전제되어 서술어 ‘없다’와 공기할 수 없는 반면, ‘-(으)ㄹ’의 [-실현]은 ‘수’의 특정적 해석을 유도하지 않아 ‘없다’와 공기할 수 있다.

‘-(으)ㄹ 수밖에 없’ 구성과 ‘-는 수밖에 없’ 구성 역시 관형사형 어미가 각각 다른 의미의 ‘수’와 공기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다만 예외적으로 ‘할 수 없다’와 ‘하는 수 없다’ 등 관용적 표현에서만 관형사형 어미 간의 대립이 드러나지 않는다.

본고는 의존명사 ‘수’ 구성을 말뭉치를 기반으로 하여 전보다 세밀하게 분석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관형사형 어미의 의미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수’의 의미, 특히 [가능성1]의 다양한 의미 분석에는 부족함이 있어 연구의 한계를 인정하는 바이나, 앞으로 관형사형 어미와 의존명사간의 의미적 관계를 밝히는 데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 - 용법 편》, 한국어 교육 총서 2, 국립국어원.
- 김지은(1998), 《우리말 양태용언 구문 연구》, 한국문화사.
- 문숙영(2005), 한국어 시제 범주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재연(2003), 한국어와 영어의 양태 표현에 대한 대조적 고찰: 부정과 관련한 문법 현상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22, 이중언어학회, 199-222.
- 박재연(2006), 《한국어 양태 어미 연구》, 국어학총서 56, 태학사.
- 심현숙(1982), 관형형 어미의 의미분석: /-은/, /-는/, /-던/, /-을/, 《상명대학교논문집》 10, 상명여자대학교, 93-116.
- 시정곤·김건희(2009), ‘-을 수 {있다/없다}’ 구문의 통사·의미론, 《국어학》 56, 국어학회, 131-159.
- 안정아(2005), 의존명사 ‘수’와 ‘줄’의 의미 연구, 《어문논집》 52, 민족어문학회, 121-145.
- 안주호(1997), 《한국어 명사의 문법화 현상 연구》, 한국문화사.
- \_\_\_\_\_(2004), ‘-ㄴ 수 있’ 구성의 특징과 문법화, 《한국언어문학》 53, 한국언어학회, 207-232.
- 안효경(2001), 《현대국어의 의존명사 연구》, 역락출판사.
- 유현경(2009), 관형사형 어미 ‘-을’에 대한 연구: 시제 의미가 없는 경우를 중심으로, 《어문학》 104, 한국어문학회, 57-81.
- 이주행(2009), 《한국어 의존 명사 연구》, 한국문화사.
- 임동훈(2009), ‘-을’의 문법 범주, 《한국어학》 44, 한국어학회, 55-81.
- Bybee, J., R. Perkins, & W. Pagliuca (1994), *The Evolution of Grammar: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the Language of the World*,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